

거리두기 해제...“함께 졸업할 수 있어 기뻐”

▶ 르포 ▶ 광주남초등학교 졸업식 기보니

3년만 치러지는 대면 졸업식
행사장 졸업생, 온 가족 북적
중학교 입학 등 새출발 축하

“엄마·아빠와 친구들과 함께 해서 너무 기뻐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광주지역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대면 졸업식이 부활하고 있다. 가족과 친척들이 학교에 찾아가 졸업생에게 꽃다발을 안기는 등 졸업식 풍경이 코로나 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되살아났다.

지난 6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남초등학교 제 75회 졸업식.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은 졸업생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2층 스탠드에도 빈 자리가 거의 없었다.

졸업식 참석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졸업생 학부모들이 대거 졸업식장을 찾았다. 졸업생과 가족들은 학교 후문에 풍선장식으로 꾸민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학교에서도 84명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했다. 3년 만에 졸업생이 다 함께 모이는 졸업식이었기 때문이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동안 강당 무대에는 졸업생들의 얼굴 사진과 반 친구들이 해주고 싶은 말 등이 영상으로 나왔다. 친한 친구가 무대에 오르면 객석에서는 “멋지다”, “예쁘다”, “축하해” 등의 구호가 나왔다.

정영숙 교장은 졸업생들에게 최계락 시인의 동시 ‘꽃씨’를 들려주며 탄실한 열매를 맺어 미



지난 6일 광주 동구 남초등학교 제75회 졸업식에서 졸업생과 학부모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래사회의 주역이 돼 달라고 응원했다.

정 교장은 “3년만에 졸업생과 학부모가 참여

한 졸업식이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 강당 리모델링 후 첫 행사여서 의미가 깊다”며 “졸업을 축

하하고, 정든 학교를 떠나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1~5학년 후배들은 영상을 만들어 졸업생 언니, 오빠를 축하했다. 졸업생들도 6년간 학교 생활을 추억하는 영상은 만들어 친구, 선생님,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했다.

김민주 학생(12)은 “초등학교 6년을 잘 보낸 자신을 칭찬한다”며 “중학교에 가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겠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주 학생은 “6년간 학교생활이 아쉽기도 하면서 즐거웠다”며 “중학교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현미씨는 “대면 졸업식이 열리게 돼 다행이다. 아이들이 만든 영상을 보며 아이가 성장한 것을 실감했다”며 “6년간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한만큼 중학교에서도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학년 3반 조명지 교사는 “올해 목표는 아이들에게 코로나19로 못한 학교생활 추억 만들기였다. 학생들과 함께 대면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중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멋진 미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글·사진=황애란 기자



눈 썰매 즐기는 가족들

7일 오후 주말을 맞아 광주 패밀리랜드 눈썰매장을 찾은 한 가족이 눈 위에서 튜브를 타고 사진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목포해경, 지난해 섬·해상 응급환자 385명 이송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전남 섬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385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응급환자의 84%인 385명은 도서 지역에서, 나머지 62명(16%)은 해상에서 발생했다. 신안군 59%(229명), 진도군 33%(128명)

등 섬이 많은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응급환자 유형은 지병 및 질환 28.3%, 외상 24.4%, 복통 13.7% 등이었다.

이송 수단은 해경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이 81%(313명)로 가장 많았다. /목포=김동균 기자

음주전과 50대, 벌금 1,200만원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운전자가 10년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환준 기자

‘안전대책 뒷전’ 광주도시공사 3월 골프장 이용료 인상 공분

“체육시설 적자 메꾸기 꼼수”

광주도시공사가 골프연습장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대책은 뒷전(본보 2022년 11월 7일자 7면)으로 미룬 채 적자 손실을 메꾸고자 이용료를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상무·빛고을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이 인상된다.

40회 1회 이용요금은 1만원에서 1만 2,000원, 70회 1회는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다.

1개월과 3개월 60회 이용요금은 각각 19만원과 23만원으로 3만원씩, 5개월(210회)과 6개월(180회) 이용요금은 모두 50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된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1일부터 월 레슨비용도 프로 25만원, 투어프로 30만원으로 5만원씩 올린 바 있다.

도시공사는 상무골프연습장과 빛고을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적자시설인 영주골프연습장과 빙상장·수영장에 사용하고 있

다. 광주시 체육시설인 영주골프연습장의 경우 조례를 근거로 이용료를 산출해야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변동할 수 없다.

특히 하루 평균 1,180명이 이용하는 상무골프연습장과 빛고을골프연습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흑자의 모습을 띄지만, 이번 이용료 인상은 영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적자 재정을 메꾸기 위한 꼼수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상무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서구 주민 A씨는 “최근 국내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확산기를 틈타 캐디피·카트비 등 각종 요금을 대폭 올렸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마저 가격이 오르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적자 손실을 굳이 골프연습장에서 충당해야하는지, 도시공사의 행정력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불가상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이용요금은 4년 6개월, 레슨비는 8년 만에 인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환준 기자

포장지 전문기업 디에스팩(주)
눈에 띄는 디자인 포장지는 곧 매출이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음색 인쇄를 통해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동판 인쇄: 음색인쇄를 통한 음판비 절감

다양한 기성봉투: 고민하지 말고 구매하세요

다품종 소량생산: 비용, 재고 부담 절감

친환경 잉크: 인체에 무해한 EB잉크사용

디에스팩(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두로 70 (월전동 1250)
TEL : 062) 942-0000 dsp0011@naver.com

ECO 우리의 품 식품보다 더 깨끗한 포장지

소중한 가족이 먹는 식품은 포장지부터 달라야 합니다!

지퍼스텐딩 파우치, 박스파우치, 견수산물 / 농수산물 기성 봉, 농수산물 기성 봉투 (일반형, 숨구멍)

디에스팩의 기술력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제품은 합판하여 인쇄가 가능합니다.

디에스팩에서 친환경 EB잉크를 사용하여 동일한 컷 사이즈의 제품을 합판하여 인쇄하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은 고객님의 재고 관리와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